Market Index / 30일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		유가(WTI, 달러)		환율(원)		살때	팔때		살때	팔때
▲	2472.01 +39.14	▲	729.54 +2.00	▲	78.20 +0.96		1USD	1341.57	1295.43	1EUR	1391.53	1337.23
							100￥	969.92	935.60	1CNY	193.62	175.18

주택시장 미분양 쌓이고 매매 반토막

국토부 10월 제주 통계… 매매 전년대비 44% 감소
미분양주택은 1722호로 한달사이 33%가량 늘어나

연이은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 우려 등으로 전국적으로 주택거래가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제주지역 주택시장의 냉기도 여전하다. 제주의 10월 주택매매거래량이 1년 전보다 40% 넘게 줄어든데다 미분양 주택도 2배 가까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30일 국토교통부의 주택 통계에 따르면 10월 도내 주택매매거래량은 480건으로 전달(2022년 9월·636건)과 1년 전(2021년 10월·863건)과 비교하면 각각 24.5%, 44.4% 감소했다. 이는 2019년 9월(548건)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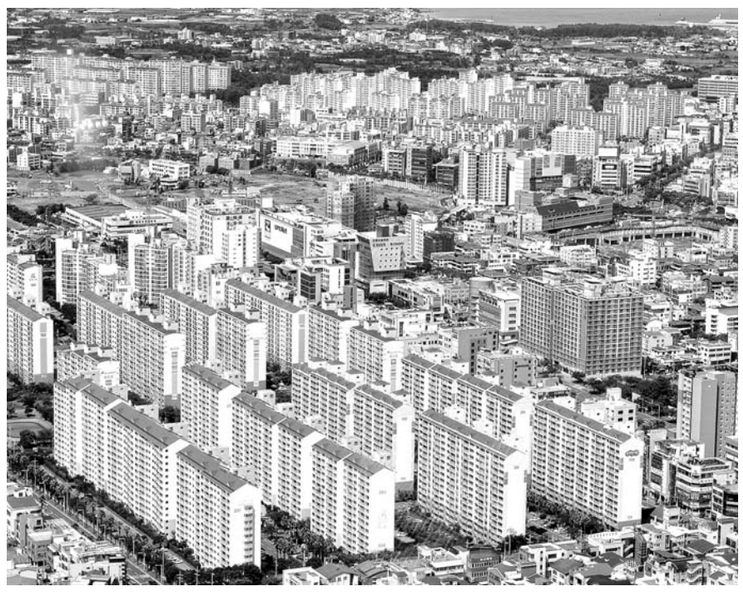
매매거래가 감소한 대신 전월세 거래량은 증가 추세다. 10월 도내 전·월세 거래량은 1574건으로 전달(1490건)과 1년 전(1206건)보다 각각 5.6%, 30.5% 증가했다. 5년 평균과 견주면 81.2% 증가했다.

도내 미분양도 늘고 있다. 10월 말 기준 도내 미분양 주택은 1722호로, 전달(1299호)보다 32.6%(423호) 늘었다. 지난해 12월(836호)보다는 2배 증가했다. 도내 미분양 주택은 2018년 12월 1295호, 2019년 12월 1072호, 2020년 12월 1095호 등 매년 1000호를 웃돌고 있다.

미분양 주택 중 공사를 모두 마치고도 분양이 안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0월말 기준 696호로 전달보다 1.0%(7호) 소폭 줄었다.

미분양 주택이 늘고 있지만 인허가·착공 등 주택 공급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올해 1~10월 도내 주택 인허가 물량은 8982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5118호)과 비교해 75.5% 증가했다. 주택 착공은 5998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3735호)보다 60.6% 늘었고, 주택 준공은 3231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3122호) 대비 3.5% 증가했다. 주택 분양(공동주택)은 지난해 같은 기간(908호)보다 211.2% 증가한 2826건으로 집계됐다.

박소정기자



제주지역 10월 주택매매건이 1년 전과 비교해 무려 44%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10월 기준 미분양주택도 1722호로 한달새 33%가량 늘었다. 사진은 신제주지역 항공사진. 한라일보 DB

안전한 제주, 가스안전 이렇게 <하> 가스 사고 예방 사업

곳곳 사고에 취약… "주의 깊게 점검을"

고무호스→금속배관으로 교체
타이머콕·보일러CO경보기 등
LP가스 사고 예방 사업 다양
읍면동주민센터서 신청 가능

지난해 기준 제주의 가스 사용 가구는 28만9000여 가구. 이 중 90%에 가까운 25만2600여 가구가 액화석유(LP)가스를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다. 30일 한국가스안전공사 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전국의 가스 사고(558건) 중 58%(324건)가 LP가스 관련 사고였다. 상대적으로 안전사고에 취약한 LP가스 사용 가구가 많은 제주는 사고 예방에 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도내 LP가스 사용 가구의 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도 다양하다.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가스안전공사 제주본부는 도내 LP가스 사용 가구의 안전 확보와 사고 예방을 위해 'LP가스 안전기기 보급사업'에 나서고 있다. 사고에 취약한 LP가스 시설의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해주거나, 일정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가스가 차단되는 타이머콕과 가스보일러에서 일산화탄소(CO)가 누출되면 알려주는 경보기 설치 등이다.

노후된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해주는 'LP가스 시설 개선사업'은 LP가스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 가구와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각각 나눠 진행되고 있다.

취약계층 가구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26억원의 예산을 들여 1만2032가구(제주시 6373가구·서귀포시 5659가구)의 가스시설을 무료로 개선했다. 일반 가구는 지난해 4500만원(국비 40%·지방비 40%·자부담 20%)을 들여 180가구(제주시 120가구·서귀포시 60가구)의 가스시설을 개선했다. 일반 가구는 시설개선비 25만원 중 자부담금 5만원을 내야 해당 시설을 교체할 수 있다.

LPG가스 시설 개선 전(위)과 개선 후(아래).

또한 가스레인지를 이용해 음식물을 조리하던 중 깜박해 과열 화재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가 설정한 일정 시간이 되면 자동적으로 가스밸브가 차단되는 가스안전장치인 타이머콕 보급 사업도 시행되고 있다. 사고 위험이 높은 고령자, 치매가정 등을 대상으로 타이머콕을 무료로 설치해주고 있는데,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8769가구(제주시 5054건, 서귀포시 3715건)에 설치됐다.

가스보일러 일산화탄소(CO) 경보기 보급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올해 처음 시행된 이 사업은 사회복지시설, 서민층, 고령자 가구의 가스보일러실에 CO누출 경보기를 무료로 설치하는 것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제주본부 관계자는 "전국 LP가스 사용 주택의 가스 사고가 시설 개선 사업 시행 전 보다 51.7% 감소했다"며 "시설 개선과 안전기기 보급 사업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해 하면 된다"고 말했다. 박소정기자

제주~부산 하늘길 복선화

국토교통부는 항공 안전성과 운항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달 1일부터 제주~부산 남해 항공로(A586) 약 300㎞를 복선화한다고 30일 밝혔다.

남해 항공로는 제주~부산, 제주~대구 등 국내선뿐 아니라 대구와 부산에서 태국, 싱가포르, 필리핀 등 동남아로 연결하는 국제선도 이용하는 구간이다.

그동안 제주~부산 남해 항공로는 단선 항공로에서 마주 보는 항공기 간 고도를 분리해 운항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번 항공로 복선화를 통해 제주 방향과 부산 방향이 각각 분리 운영된다.

국토부는 항공기 상승과 하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근접 가능성을 차단해 항행 안전성 제고와 정시성 확보 등의 효과를 가져올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소정기자

■ 한국무역협회 '10월 제주지역 수출입' 분석

7개월 연속 수출 ↓… 농수축산물 '감소'

제주지역 수출 감소세가 7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반면 수입은 면세점 소비재인 화장품류 등을 중심으로 3개월째 증가하고 있지만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

30일 한국무역협회 제주지부의 '10월 제주지역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10월 수출액은 1322만달러로 1년 전보다 30.2% 감소했다. 수입은 1년 전보다 2.7% 증가한 3298만달러로 1976만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수출 감소는 지난 4월(17.0%)부터 5월(10.6%)→6월(19.2%)→7월(37.7%)→8월(30.5%)→9월(26.1%)→10월(30.2%) 등 7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 무역협회는 지난해 수출이 급증했던 데 따른 역기저효과와 주요 부품의 공급망 병목현상, 메모리 반도체 업황 부진 등 영향으로 수출에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산업별로 보면 전자전기제품 수출액은 62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9% 줄었다. 이는 도내 수출 1위 품목인 모노리식집적회로가 칩셋 등 주요 부품의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과 메모리 반도체 업황 부진 등 영향으로 수출액(591만달러)이 1년 전보다 37.0% 줄어든 게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농축수산물 수출액(574만달러)도 1년 전보다 17.6% 감소했다. 수산물, 농산물, 축산물 모두 1년 전보다 동반 감소했다. 수산물의 경우 넙치(214만달러, 22.0% ↓), 전복(18만달러, 65.6%↓), 기타활어(10만달러, 29.0%↓) 등 주요 품목이 1년 전 호조에 미치지 못했다. 농산물의 경우는 생수(23만달러, 40.8%↑), 소주(11만달러, 169.2%↑), 감귤류(9만달러, 2.1%↑) 등이 증가한 반면 감귤농축액(31만달러, 18.4% ↓), 녹차(16만달러, 14.4%↓), 키위(9만달러, 17.7%↓) 등은 감소해 품목별로 희비가 엇갈렸다.

화장품류는 쿠웨이트, 조지아, 중국시장에서 선전하며 1년전보다 58.4% 증가한 35만달러를 수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최신 국내육성 감귤 묘목 생산 전문업체
전망 좋은 신품종 감귤 만감류등 각종묘목을 선별하여 최상의 상품을 공급해 드립니다.

품질이 우수한 국산 품종
윈터프린스 — 차별화된 맛과향, 껍질 벗김이 쉬워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만감류. 연내수학 가능한 만감류 과일시장의 새로운강자!
탐나는봉 — 미국에도 2019년 식물특허 등록완료! 색상이 진하고 당함량이 높고 식감이 우수. 기존 한라봉(부지화)보다 우수성을 인정받은 우리 품종.
사라향 — 껍질 표면이 매끈하면서 두께가 얇으며 기존 천혜향보다 과육 밀도가 높으며, 2월 중하순 성숙하며 과즙이 풍부하면서 고유의 향기가 있음.
하례조생 — 조숙 온주밀감으로 기존 궁천조생보다 같은 시기 당도는 높고 산함량은 낮아 11월 고품질 감귤을 생산 출하할 수 있는 품종,
제라몬 — 함량 및 높아 향기가 진한 레몬 품종 내한성이상대적으로 강한 걸로 평가되는 품종.
미니향 — 소과형(30g내외) 감귤로 당도가 매우 높으며,기존 품종과는 차별화된 고품질 품종.

과수농가 보급품종(1.3년생)
레드향,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유라조생
궁천, 흥진, 카라향, 산화홍(붉은색 감귤)

가정원예(조경수)(2~7년생)
하귤, 팔삭, 세미놀, 금귤, 당유자, 아마나스
미니몬, 국내산 탱자묘목 판매 (신고번호 03-0182-2020-3)

❖ 제주한라농원 감귤류묘목 전시판매장 개장!!
❖ 1년생 규격묘, 2~5년생 일반묘, 포트묘, 화분묘 분양
사전예약 주문생산 탐빛1호, 선킹, 설봉미, 미니몬, 무봉

제주한라농원은 (사)한국과수종묘협회 우수업체이며, 우수신품종을 농촌진흥청 국유품종보호(통상실시권)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판매하는 종묘전문업체입니다.

제주한라농원 | 010-4736-2479 / 010-6500-2329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7-20-02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일로 991번길1(수산리735)

우량 감귤묘목
종자업등록번호 제18-서귀포-2021-20-02호
우수한 품질의 감귤묘목만 생산하여 직접 판매합니다
레드향 · 천혜향 · 황금향
한라봉 · 궁천
오하라베니 · 조경용 하귤
※현장방문 환영※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동로 268-168
제주감귤묘목영농조합법인
010. 7204. 1286

허가번호 18-제주2022-20-03
감귤묘목
유라조생 ····· 2~3년생
유라실생 ····· 5년생
천혜향 ····· 3~5년생
황금향 ····· 3~5년생
한라봉엠 ····· 3~6년생
남진해 ····· 3~4년생
성전온주 ····· 3년생
하례조생 ····· 3년생
탐라봉 ····· 3년생
윈터프린스 ····· 3년생
감평 ····· 3년생
진지향 ····· 3년생
탱자묘 ····· 1년생
한림종묘사
010-8820-5769
종자관리사 010-3690-2453